

버려진 아이들 엄마 기다리다 울며 잠든다

요보호아동 1만명...매년 증가

보미(10·가명)·보영(8) 두 자매는 오늘도 온종일 침박을 내다 보며 누군가를 기다린다. 어둠이 내려오면 부쩍 우울해졌다. 4년째 목소리로 듣지 못한 엄마, 아빠. 그래도 평상시엔 견딜만했다. 일년에 한 두 번인 명절 때만이라 부모를 따라 잠시 이곳을 떠나는 또래들을 보고는 더욱 엄마, 아빠가 그리워졌다. 설날 아침에는 두 자매가 옷장에서 물레 부동 꺼내고 울며 엄마 아빠를 더욱 애타게 찾아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진석(9·가명)이는 며칠 전부터 베란다에서 턱을 쥔 채 마당만 쳐다보고 있다. 설 때 엄마, 아빠를 따라 집에 다녀 온 뒤로 엄마, 아빠가 또 데리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항상 엄마랑 아빠랑 살았으면 좋겠는데...' 진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버려진 아이들. 이곳에는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원생 73명중 40명을 넘는다. 금방이라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올 것만 같은 엄마, 아빠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이들. IMF 2년의 그늘을 지난 요보호아동 1만명 이상이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이런 곳은 비단 해명보육원뿐 아니다.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경기 구리 솔지놀이방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지의 각 보육원과 놀이방에서 어렵게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버려지거나 미아가 된 어린이(요보호 아동)들은 97년만 해도 연간 6천명 정도를 넘지 않았으나 본격적으로



◇IMF후 버려진 아이들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IMF가 끝났다는 요즘도 놀이방이나 보육원 등에 아이를 버리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버려진 아이들에게 '기대림'은 눈물겨운 일상이자. 부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해명보육원의 아이들.

IMF 환파가 시작된 98년과 99년에는 1만명선에 육박했다. 이중 반 수 정도는 미혼모의 아기 등 양육욕구 신생아가 포함돼 있다. 보육원이나 놀이방에 맡겨진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이나 별거, 가출함으로써 고아나 고아가 된다. 맡겨졌다고는 하지만 단 한 번도 찾지 않는 부모들이 대부분이 아니 버려졌다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하다.

버려진 아이들 가운데에는 많은 수가 만성 실사로 인한 체중감소와 머리가 한올씩 빠지는 피부 질환을 겪는다. 애정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또 오랫동안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성장 후 어느 집단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성향을 지니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명보육원 고영화 보육사(46)는 "결국엔 문제 있는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육방에경>에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데 있어서 다섯 가지를 행해야 한다. 악을 떠나 선에 나아

우리말에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교편(敎鞭)이라 하고, 잘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편다(鞭撻)이라고 한다. 이 말에는 모두 '채찍으로 때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스님들은 마음이 해이해질 때 채찍으로 어깨를 쳤다. 소리는 크지만 아프지는 않아서 규율을 어기거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도구로 널리 이용되었다. 이것도 일종의 채찍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매(채찍)와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왔다. '매 끝에 정든다' '매 끝에 효자 난다' '미운 자식 밤 한 술 더 주고 고운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속담도 그래서 생겨났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런 채찍이 교단에서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학생들의 인격과 인권 수호라는 미명으론 채찍을 금지한다는 엄명을 내리고 신고 전화까지 개설했으며, 학부모 교육도 강화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이 교육하고 선도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었다. 학습 태도가 나쁘다고 꾸중만 해도 집에 전화를 걸고 행실이 나쁘다고 머리에 알밤만 쥐고 신고를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교사는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학생 지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말미암지 않던 한밤제 관소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불가피한 처벌은 정당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교육현장을 생각지 않고 탁상에서 결정해 밀어붙이는 사람들에게 각성을 촉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20여 년 전에 교육의 민주화니 학생의 인권이니 하여 교복도 없애고 두발도 자율화시켰다. 일부에서는 제복이 갖는 통제력이나 학교전통이며 동문간의 일체감 등 긍정적인 면을 말했지만 힘있는 사람들이 군국주의 잔재, 계층간의 갈등, 심지어는 국민화합의 걸림돌을 운운하며 교복을 없애고 두발까지 자율화시켰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염려



김종상
(서울 유석초등학교 교감)

했던 대로였다. 학생들의 비행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유혹업소를 출입해도 지도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다시 교복을 입히기 시작했다.

체벌을 금지한 후에 교편은 상실되고 교실은 무너지고 있으며 교육은 황폐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회초리로 맞았다고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아이들 앞에서 교사는 그저 패배자에 불과하고,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교사직은 그저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그래도 교육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각 학교는 공여

지책으로 교칙으로 체벌 규정을 정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자경심(自警心)을 일깨우는 수단으로 체벌을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의 방법 찾기에 부심해 왔다. 물론 체벌을 하지 않고 교육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요즘의 가정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마저 일정한 규칙을 지키게 하지 못한다면, 어찌 남을 생각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인으로 키울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 속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학생 체벌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교사의 자질과 양심에 맡겨두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분명 교단과 교편에 하나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울고 있는 교단을 한 개의 작은 버팀목으로 지탱하기에는 힘겹다. 말쑥 많은 학생을 체벌했을 때 그것이 교육적인 애정으로 한 사랑의 매나, 아니면 감성적으로 때린 폭행이나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을 얻어 교사 자신의 교육관과 신념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신성불가침의 절대 권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사들도 신념과 자긍심으로 교육현장을 지킬 수 있다.

그래도 따뜻한 사회

백혈병 환자에 혈소판 폐지모아 불우이웃 장학금

불교에서는 보시를 제일의 공덕으로 여긴다. 보시 중에는 때를 맞춰 베푸는 보시도 있고, 필요한 것을 베푸는 보시도 있으며, 가난한 이웃을 위해 베푸는 보시도 있다. 이런 보시를 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아름다워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백혈병 환자에게 '생명수'와 같은 혈소판을 나눠 주어 귀감이 되고 있는 두 젊은이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똑같이 20세인 김지현·이효진씨. 김씨는 97년부터 1~2주에 한번 꼴로,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혈소판을 제공해 왔다. "90만만 장이면 한 사람의 값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이들의 신념은 마치 "때를 맞추어 지혜롭게 보시하고 믿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살아서는 기쁨을 누리고..."라는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른 듯하다.

지난 7일에는 경비와 청소 등을 하는 경회대 기능직 근로자 10명이 2년동안 폐지를 모아 만든 1520여만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아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었다. 더욱이 "실사 백천번 기도하고 모든 의도에게

공양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베풀 공덕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며,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얻은 재물로 거창하게 베풀다 해도 깨끗한 재물로 베푸는 작은 보시의 공덕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부처님 말씀을 되새겨보면, 폐지를 수집해 행한 이들의 보시는 더욱 값지다.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자원봉사 동아리 '포비'(F.O.B.Y) 회원 12명은 설 연휴에도 학교 인근 중·고생들과 함께 '버스 도우미' 봉사활동을 했다. 버스에 올라 종점에서 종점까지 거동이 힘든 노인이나 무거운 짐을 든 이들을 도와 안전하게 버스에 오르고 내리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들의 봉사활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신들만 봉사활동의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그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보시할 때는 자기만의 깨달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모든 중생의 공덕을 위해서 해야 하며, 보시 바람을 가지고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달음 모두 이루어지길 서원해야 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8일 한 40대 회사원은 신원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대부터 불우학생들을 돕겠다고 세웠던 자신의 서원으로 경남도에 12억원의 장학금을 내놓았다.

"보시할 때 후세에 다리(橋)가 되겠다고 서원하라"는 부처님 말씀대로 서원시(誓願施)를 그대로 행한 회사원. 세상은 그래서 '실만한 곳'인가 보다.

한국병' 시민의 힘으로 바뀌

시내버스-화장실 바로세우기 운동

대중대중주의나 연구주의 등 우리 사회에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고질병들이 수두룩하다. 그 중에서도 중반정신과 공중도덕 부재에 시비된 시내버스 난폭운전과 불결한 화장실은 우리 사회 몸전체에 퍼져 있는 악성 종양과 같은 것들이다.

최근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시내버스 바로 세우기' 운동과 화장실 문화 바로잡기 운동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운전기사는 지난해 말 인터넷에 '시내버스 바로 세우기'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난폭운전 경험과 반성을 매일 일기형식으로 적는 한편, "불법운행은 그냥 보고 넘기지 말자"면서 버스가 불법운행할 경우 신고요령을 소개까지 해 놓았다. 그는 "난폭운전이나 업주의 부도덕성 등에 대해 더이상 관용을 베푸는 것은 방관"이라며 "주인인 시민 스스로 권리를 찾자"고 호소하고 있다.

'화장실 문화 바로 세우기'에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구시도 이에 합류했다. 서울시는 불량 공공화장실에 대해 '삼진 아웃제'를 시행기로 한데 이어 7일에는 4800여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신(新)화장실 문화'를 뿌리내리겠다는 태세다.

다음의 인터넷사이트나 전화를 적극 이용해도 좋다. 고질적인 '한국병', 시민의 힘으로, 불자의 힘으로 바꿔보자.

△시내버스 바로 세우기 홈페이지(www.members.tripod.co.kr/ramon)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0331-226-7001/www.toilet.or.kr)
△화장실문화시민연대(02-3707-9776/www.restroom.or.kr)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연말연시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혜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五分香 ...

-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풍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계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료·중료·재료·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五分香을 찾아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친노하지 못하고 이례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할 생각이 나며, 모든 법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막 삼보의 일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유근 청정하고 불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의 효능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물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듯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리시력을 복돋워 준다.	10. 몸뚱이를 높여준다.

공급처: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학불교대학 내 해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예금주: 김정순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